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이 수 진[†]

국민대학교

본 연구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개인의 사회적 발달과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사회와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하는 발달기적 과업과 대학에서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특성이다.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은 개인의 인지구조체로 사회적 정보처리 및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정도가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대인관계문제를 매개적인 역할을 탐색하였다. 서울 소재 종합대학교 재학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유대감, 자율성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유의하였으며, 사회유대감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학생의 유대감과 자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대학생,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인관계문제, 대학생활적응, 주관적 안녕감,

* 이 논문은 2009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수진,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E-mail: sjlee@kookmin.ac.kr

서론

대학시절은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기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개인에서 많은 자유와 선택이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하루 일과가 지정되고, 교사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공부하는 방식이 익숙했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에 오면 자신이 원하는 전공이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수업시간의 준비나 공부의 양도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은 개인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대우와 기대가 달라지고,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적응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활에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으로는 대학에서 제시되는 학업적 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학업적인 적응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으로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포함한다(신지영, 2000; 이보라, 2005 재인용; Robbins, 2004).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측

정하는 것으로 정서적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정서적 요인은 높은 긍정적인 정서와 낮은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며, 인지적 요인은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차경호, 2004), 학교정책에 대한 만족, 대학에서의 대인관계, 취업가능성도 대학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고(김준곤, 성한기, 이춘희, 박경자, 1991), 신입생의 경우 자신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 2007). 반대로 대학생활동안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고, 자율적이지 못할 경우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학업에 있어 학생의 내적동기가 낮으며, 불안수준이 높아지며 학교 적응력과 안녕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성경, 2003; 김아영, 2008; 김은주, 2007; 소연희, 2007).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대감, 유능감이 만족될 때 개인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발휘되며, 스스로 성취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발전과 안녕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yan & Deci, 2000). 또한 상담을 의뢰하거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외로움 혹은 격리됨에 대한 두려움일 경우가 많으므로 유대감이 인간생활의 근원적인 동기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특히 대학생활은 개인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확장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유대감과 자율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박장희와 조운주, 2006).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고려해 볼 때, 대학생활의 적응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대학생활적응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개인, 사회, 학교 등 변인에 의한 영향력을 설명할 뿐, 변인간의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으로인 중 사회유대감과 자기결정이론의 이론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유대감과 자율성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대감의 중요성은 애착(Bowlby, 1969), 사회적지지(Sarason, Pierce, & Sarason, 1990), 관계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로움(Peplau & Perlman, 1979)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대감에 대한 욕구는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소속된 사회와의 연결성을 가질 때 충족

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Kohut(1984)의 자기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환경에 참여하고, 동일시하면서 사회유대감을 만족시키게 된다. 사회 안에서의 대인관계란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가까운 관계부터, 주변 인물, 낯선 이들과의 소통, 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은 서서히 내재화되며 개인의 사회유대감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 대인관계를 포괄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소속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인지적 표상을 사회유대감(Social connectedness)이라고 부른다(Lee & Robbins, 1995). 사회유대감은 개인의 사회생활을 주관하는 일종의 렌즈로 작용하며 사회적 정보처리는 물론 정서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유대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본인의 욕구와 감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이 개인을 낮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Kohut, 1984). 사회유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성은 개인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회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Aronoff, Strollak, & Woike, 1994). 이와 반대로 사회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8; Lee et al., 2001). 또한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열등감 및 우울과 슬픔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석만, 1995).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서 자율성은 통제소재를 묻는 것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기를 원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0).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율성을 지지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교사가 더욱 자율성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생들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lnick & Ryan, 1989). 반대로 자신이 결정하는데 타인에 의해 통제받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자율성의 욕구는 좌절되고,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아지면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아영과 이명희, 2008).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대학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성취하고 개별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Blos, 1979; Erickson, 1968). 이희영과 최태진(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태도적, 정서적, 기능적인 독립이 대학생들의 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으로의 독립이 대학생 적응에 중요하다는 결과는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지영, 2000; Choi, 2002; Lapsley, Rice, & Shadid, 1989). 자기결정 이론의 연구에서는 외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충족될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Ryan, 1982; Levesque et al., 2004). 즉 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업에서의 집중이나 만족도가 높아진다(Grolnick &

Ryan, 1989; Vallerand, Fortier & Guay, 1997).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대학신입생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이 대학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제시되었다(김은주, 2007).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변인으로 오해하기 쉽다. 즉 자율성은 분리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탈맥락적인 성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립, 개성추구, 자기주장적, 성취지향적인 특성과 연결 짓게 된다(조운정, 2003). 반면에 유대감은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연결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 친밀한 교류, 자유로운 정서 표현과 연결되어 이해된다(조운정, 2003, Lee et al, 2001). 김동직(1999)은 유대감과 자율성이 단일한 차원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아니라 직교적인 2차원적임을 밝힘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두 개념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uisinger와 Blatt(1994)는 유대감과 자율성의 변증법적 모델을 통해 자율성이나 유대감 중 어느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특성이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의 발달이 촉진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두 변인의 적절한 조화가 통합이 성숙한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Blatt & Shichman, 1983; 조운정, 2003 재인용). 사회유대감의 연구에서도 사회유대감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관계를 통해 축적된 자기에 대한 이해와 관계에 대한 안정적인 유대감의 표상으로 이해하며, 타당화 과정에서도 독립적인 자기개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 상호의존

적인 자기개념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1). Deci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이란 혼자 독자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제의 소재가 내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Deci & Ryan, 2001). 자율성과 유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율성이 높을수록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주, 2007;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 Ryan, R. M., 2004).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의 특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Kitayama & Markus, 1998). 서양 문화는 타인과 독립된 자아를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타인과 구분되는 자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동양문화에서의 자기관(self-construal)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체제가 형성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정의되는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self)이기 때문에 유대감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Kitayama & Markus, 1998; Cross, Bacon, & Morris, 2000). Kitayama와 Markus(1998)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율성과 유대감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Cross et al., 2003). 실제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다문화적 연구를 살펴보면, 홍콩의 대학생들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보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Kwan et al., 1997).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조되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므로 유대감이 중요

한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대학생들의 경우 고유한 발달기적 특성과 최근 개인주의 성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활지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문제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문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시기에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적응이 중요하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 중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석만, 1995). 대인관계문제가 일차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고립감이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면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적 병리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Horowitz & Vitkus, 1986).

대인관계는 자신과 타인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대인관계의 발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권석만과 김지영,

2002; Horowitz & Vitkus, 1986).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은 과거에 경험한 대인관계의 결과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내적 작동모델에 자신과 외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사교성이 떨어지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비적응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이러한 비적응적 행동양식은 타인의 비난이나 따돌림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더 큰 심리적 부담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Hazen & Shaver, 1987; Rook, 1984). 사회유대감의 연구에서도 사회유대감이 높은 여성들은 타인에게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사회유대감을 강화하는 반면, 사회유대감이 낮은 여성은 사회적 상황을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사회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되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8). 또한 사회유대감과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문제행동이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1). 사회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비주장적이거나, 사회관계를 피하는 등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행동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기 두려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낮은 사회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개인의 안녕감을 희생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Patton & Robbins, 1982).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 변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적인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우선 가설모형 1은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인관계문제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를 검토하고, 가설모형 2는 사회유대감, 자율성과 대학생활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의 이론을 기초하여 [그림 1]과 같은 가설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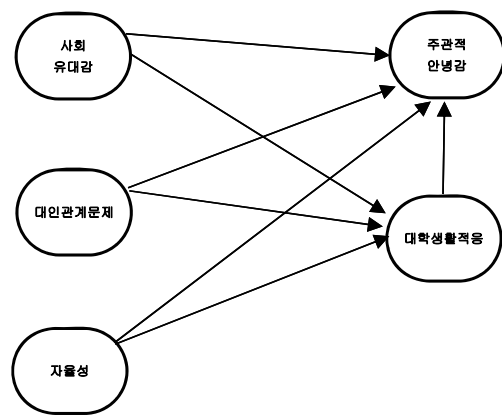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1

을 설정하였다. 사회유대감에 관한 선행연구와 자기결정이론에서 유대감과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로 작용하며 개인의 적응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다(김동직, 1999; Ryan & Deci, 2000; Baumeister & Leary, 1995). 이 두 변인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설정은 불안정한 유대감(혹은 애착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사교성이 떨어지고, 비적응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낮으며, 타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요구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개인의 낮은 유대감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순환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세 변인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대학생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구조를 가정하였다(권석만, 1995; Hazen & Shaver, 1987; Rock,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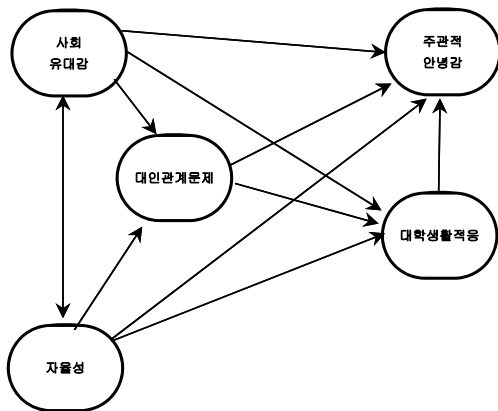


그림 2 가설모형 2

[그림 2]와 같은 가설모형 2에서는 가설모형 1과는 달리 사회유대감과 자율성, 대학생 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 변인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인지심리학의 입장에서 대인관계의 문제는 행동적인 측면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구조물,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체계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선행할 것으로 가정하였다(Baldwin, 1992). 사회유대감과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대인관계문제가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01). 또한 자율성이 외부의 간섭 없이 개인의 내적 통제를 중요시 하는 개념이므로 타인과의 관계에 상호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대인관계의 문제가 많을수록 개인의 자율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Ryan & Deci, 2002),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자율성은 이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누적되어 구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개인 스스로의 통제 및 선택에 대한 믿음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주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관계를 적응적으로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대학생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대학교의 ‘심리학개론’ 및 심리학 관련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집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438명이었으며, 연

구에 참여한 학생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총 170명으로 전체의 38.4%였고, 여학생은 273명으로 전체의 61.6%였으며,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1명이었다. 학년별 구분을 살펴보면 1학년이 105명이었고(23.7%), 2학년은 117명(26.4%), 3학년은 96명(21.7%), 4학년은 122명(27.5%), 무응답자가 2명이었다.

측정도구

사회유대감(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_R)

사회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Robbins (1995)가 개발한 SCS를 Lee R. M., Draper, M., Lee, S. J. (2001)이 수정한 검사로써 개인이 대인관계와 사회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유대감이나 유대감을 유지하는데 경험하는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영어로 제작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유대감을 묻는 10문항(‘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나는 내 또래 친구들과 사귄 수 있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낀다.’ 등)와 사회비유대감(disconnectedness) 묻는 10문항(‘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낀다.’,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집단 활동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등)로 되어 있다. 전체 4점 척도로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비유대감의 문항들은 역 채점 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유대감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원 연구진에 의해 개인주의적-집단주의 자기개념검사, 우울검사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Lee et al., 2001).

자율성

자율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은주(2007)가 제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생활 일반에 대한 내적통제소재를 전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나는 보통 내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한다’, ‘평소에 나다움을 유지하는 편이다’ 등). 저자가 보고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6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2이었다.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Horowitz 등(1988)의 대인관계 문제검사를 김영환과 홍상환(2002)이 표준화한 대인관계문제 검사 6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의 호소사항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대인관계문제를 평가하는 8개의 하위 척도마다 8문항씩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하위척도의 요인으로는 통제-지배(Domineering), 자기중심성(Vindictive), 냉담성(Cold), 사회-억제(Socially avoidant), 비주장성(Nonassertive), 과순응성(Exploitable), 자기희생(Overly Nurturant), 과관여(Intrusive)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감의 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된 냉담성, 사회-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Lee, Draper, Lee, 2001).

원 저자가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82에서 .94이었으며, 10주 간격의 검사-재검사를 통한 신뢰도는 .80에서 .90이었다. 국내 김영환 등(1999)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70에서 .85였으며, 검사-재검사를 통한 신뢰도는 .71에서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의 성격과 산출 점수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 채점을 실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냉담성이 .79, 사회-억제성이 .84, 비주장성이 .85, 과순응성이 .79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검사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4) 개발하고, 정은희(1993)가 변안한 대학생활적응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검사는 대학생활일반에 대한 만족도('나는 대학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 '나는 특히 이 대학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 한다' 등), 학업적 적응('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 해내고 있다',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등), 개인-정서적 적응('나는 최근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 '나는 최근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등), 사회적 적응('나는 대학에서 친목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 등) 등 4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여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응이 대인관계 문제의 요인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적응을 제외한 3개의 하위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일관성을 위해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대학생활 일반적 적응이 .76, 학업적 적응이 .79, 개인-정서적 적응이 .84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Index of well-being; Subjective happiness scale)

개인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미국의 Campbell(1981)이 제작한 검사를 국내에서 이명신(1998)이 번역하였다.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 혹은 삶에 대한 느낌을 재기 위한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되는 형용사가 짝지어 제시하였다('재미있는-지루한', '희망적인-비관적인', '쓸모없는-가치 있는' 등). 자신의 최근 삶에 대한 느낌을 7점 척도로 이루어진 형용사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은국, 성민선, 김진주(2007, pp.66)가 소개한 문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추가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대체로 나의 삶은 이상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행복함이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이명신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인관계문제, 대학생활 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

를상관 분석을 SPSS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인관계문제, 대학생활 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AMOS 5.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 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표본수인 200명 이상이므로 구조 분석을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Hoelster, 1983).

연구결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25 \sim .32, p < .01$), 사회유대감 3, 4, 변인은 사회비유대감을 측정하였는데 이 변인은 자율성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r =$

표 1. 주요 변인 상관표 (N = 43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유대감 1	1	.68*	-.55*	-.41*	.36*	.29*	.30*	-.56*	-.54*	-.37*	-.21*	.36*	.40*	.32*	.47*	.40*	.28*	.40*
유대감 2		1	-.46*	-.40*	.32*	.27*	.25*	-.47*	-.45*	-.34*	-.17*	.34*	.33*	.35*	.41*	.36*	.28*	.36*
유대감 3			1	.64*	-.23*	-.14*	-.22*	.65*	.67*	.50*	.37*	-.38*	-.48*	-.31*	-.50*	-.42*	-.35*	-.42*
유대감 4				1	-.15*	-.11*	-.14*	.59*	.56*	.41*	.26*	-.32*	-.48*	-.31*	-.38*	-.37*	-.27*	-.29*
자율성 1					1	.58*	.57*	-.24*	-.29*	-.32*	-.29*	.45*	.35*	.42*	.33*	.27*	.27*	.26*
자율성 2						1	.65*	-.15*	-.22*	-.29*	-.31*	.33*	.34*	.30*	.28*	.26*	.23*	.19*
자율성 3							1	-.19*	-.24*	-.30*	-.27*	.41*	.43*	.34*	.34*	.35*	.35*	.31*
냉담성 1								1	.85*	.64*	.43*	-.32*	-.36*	-.27*	-.36*	-.33*	-.26*	-.31
사회·역제 2									1	.72*	.51*	-.36*	-.43*	-.29*	-.39*	-.34*	-.26*	-.29*
비주장성 3										1	.72*	-.33*	-.44*	-.33*	-.34*	-.29*	-.24*	-.27*
과순응성 4											1	-.23*	-.38*	-.27*	-.22	-.20*	-.19*	-.20*
일반생활 1												1	.49*	.67*	.48*	.33*	.41*	.39*
학업적응 2													1	-.47*	-.53*	-.40*	-.35*	-.43*
개인·정서 3														1	.46*	.29*	.39*	.40*
안녕감 1															1	.55*	.48*	.54*
안녕감 2																1	.55*	.64*
안녕감 3																	1	.62*
안녕감 4																		1

[1. 유대감 1, 2. 유대감 2, 3.유대감 3, 4. 유대감 4, 5. 자율성 1, 6. 자율성 2, 7.자율성 3, 8. 냉담성, 9. 사회-역제, 10. 비주장성, 11.과순응성, 12. 대학생활일만족도, 13. 학업적적응, 14. 개인-정서적적응, 15. 주관적안녕감 1-정서적측면, 16. 주관적안녕감 2, 17. 주관적안녕감 3, 18. 주관적안녕감 4]

* $p < .01$

.11 ~ .23, $p < .01$). 즉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유대감이 강할수록 개인의 내적통제에 대한 믿음이 강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유대감과 자율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유대감, 자율성과 대인관계문제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유대감이 높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 참고).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인관계문제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유대감, 자율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대인관계문제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모형 1은 유대감과 자율성, 대인관계문제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정하였다. 이는 자기결정이론과 유대감관련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형성되어지므로 변인들의 관계에서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선행연구에서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은 서로 직교적인 관계의 변인이며, 두 변인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참고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대인관

계문제를 사회유대감과 자율성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간의 카이제곱값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는 절차가 일반적이지만, 카이제곱이 표본 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야 한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CFI와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가설모형 1의 적합도는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아주 나쁘지도 않았다($\chi^2 = 637.855$, $df = 114$, $TLI = .804$, $CFI = .870$, $RMSEA = .086$).

가설모형 2에서는 가설모형 1을 수정하여 대인관계문제가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대학생활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인지적 설명처럼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Baldwin, 1992; Fiske & Taylor, 1991). Lee 외(2001)가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유대감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유대감이 낮은 경우 사회적인 맥락에서 회피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구사함으로써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대인관계의 문제가 개인

표 2. 모형의 적합도

	$\chi^2(df)$	TLI	CFI	RMSEA
가설모형 1	637.855(114)	.804	.870	.086
가설모형 2	279.808(112)	.936	.958	.049

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을 가정하고 경로를 추가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이론에서도 자율성이 가장 선행하는 변인으로서 자율성이 확보되면 적응적인 사회적 발달과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Ryan & Deci, 2000)는 연구 결

과를 참고하여 대인관계문제의 변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모형 2의 적합도는 가설모형 1에 비하여 더욱 증가하였다($\chi^2 = 279.808$ $df = 112$, $TLI = .936$, $CFI = .958$, $RMSEA = .049$). 모형

표 3. 가설모형 2의 표준화된 추정치

모수	추정치
유대감 → 대인관계문제	-.86***
유대감 → 대학생활적응	.68***
유대감 → 주관적 안녕감	.54**
자율성 → 대인관계문제	.01
자율성 → 대학생활적응	.47**
자율성 → 주관적 안녕감	.06
대인관계문제 → 대학생활적응	.19
대인관계문제 → 주관적 안녕감	-.30*
대학생활적응 → 주관적 안녕감	.44**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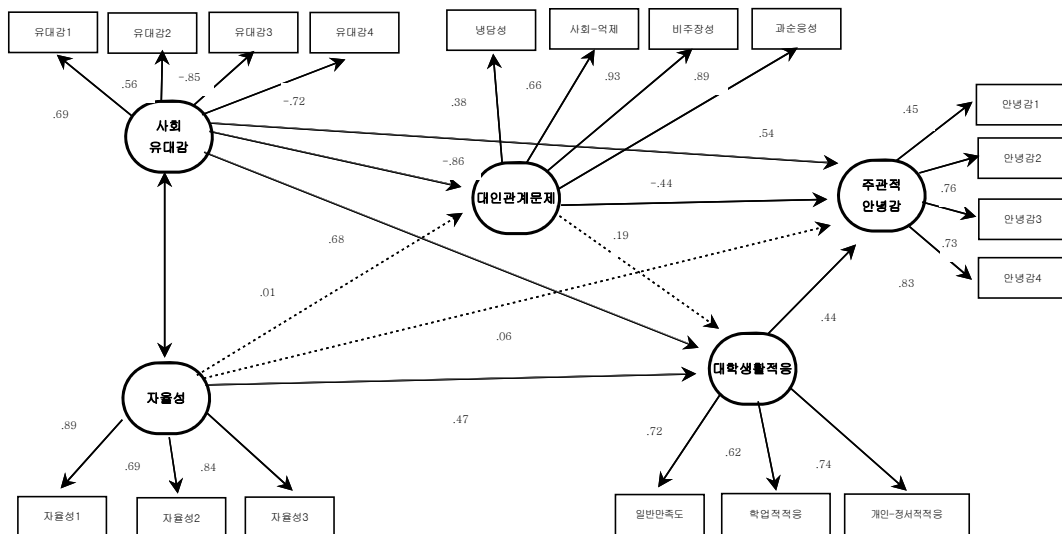


그림 3. 가설모형 2.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직선화살표: $p < .05$, 점선화살표: 유효하지 않음)

표 4.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인관계문제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문제	-.86(.00)	.01(.00)	.00	.00
대학생활적응	.52(.16)	.47(.00)	.19(.08)	.00
주관적 안녕감	.51(.37)	.22(.21)	-.38(.14)	.44(.00)

의 적합성 판단은 TLI 나 GFI 지수가 .9 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또한 가설모형 1과 가설모형 2가 내재적 관계(nested relationship)이므로 χ^2 수치를 비교하여 모형을 비교할 수 있는데, 가설모형 1과 가설모형 2의 차이는 자유도 2만큼 차이에 (114-112)에 358 이어서 이는 .05(양방)수준에서의 χ^2 의 임계치 11.98를 초과한다. 따라서 가설모형 2에서의 유대감과 자율성에서 대인관계문제로의 직접경로가 추가된 매개모형이 복잡해진 것을 상쇄할 만큼의 부합도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설모형 2를 최종 모형으로 하여 각 변인들의 모수를 추정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또 사회유대감, 자율성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된 추정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유대감이 자율성에 비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는 대학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유대감, 대인관계문제, 주관적 안

녕감과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가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유대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적게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적을수록 대학생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학생활적응,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 자율성이 높을수록 대학에 대한 만족이 높고, 학업을 잘 수행하며,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안정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유대감, 자율성과 대인관계문제,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 대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즉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유대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많지 않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사회유대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유대감과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가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Lee 외, 2001).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대감이 높고 자율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에 오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학습의 범위와 정도도 스스로 정해서 공부해야하는 등 환경적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개인의 친밀한 관계, 가족, 친구, 동료, 사회)에 대한 안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의 주체로서 '선택의 경험'을 가져본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학업을 수행하는데 수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선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자율성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대학생활에서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성경, 2003; 김은주, 2007).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사회유대감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인지체계로서 사회정보의 판단과 정서,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각각의 영향력이 개인의 발달기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학에서 요구되는 활동의 대부

분은 개인의 독자적인 성취를 추구한다기보다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하여 수행해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더 높은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자율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사회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강조되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이 개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라는 문화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김명소 외, 2001; Kitayama & Markus, 1998; Cross 외, 2000, 2003).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을 추가하여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장된 구조 안에서 탐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학업적 적응을 개인의 주관적인 학업과정에서의 적응 정도만을 평가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학업적 적응정도와 실제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을 통해 학업적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의 정도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만을 고려하였는데, 향후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친사회적행동(pro-social behaviors)을 추가하여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개인의 생활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경로를 통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유대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후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회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행동하면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증진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반면, 유대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면서 자신의 유대감이 더욱 약화되고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유대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규모의 교육보다는 소규모의 멘토링을 통해 친밀감을 회복하고, 주위 환경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유대감 구성에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내용과 접근방법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Lang-Takac & Osterweil, 1992; Woike, 1994).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과의 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확보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환경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대인 관계가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한다(Deci &

Ryan, 2002).

사회유대감이나 자율성은 개인의 도식과 같은 인지구조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비교적 단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개입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안녕감의 연구(이화령, 임남영, 류초롱, 서은국, 박수진, 2008)에서 타고난 기질과 관계없이 행동의 변화(즉, 외향적인 행동)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유대감과 자율성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 두 변인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참여대상이 서울시 소재 종합대학교 재학생이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한다. 특히 연구대상을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집단의 구성원에 따라 변인의 특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편의표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했던 모형을 비교 검증(cross-validation)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감, 자율성, 대인관계문제 변인이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단한 두 모형을 검토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효능감을 포함하여 확대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내재관계(nested relationship)에 있는

모형들의 비교를 통하여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 내용이 대부분 자기보고식으로 기입하여 정보의 왜곡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실험설계를 병행하여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의 변인이 문화적인 해석과 특성에 민감한 변인이므로,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유대감과 자율성 변인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221-242.
- 공수자·이은희 (2006). 여자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21-40.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6(1), 19-32.
-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 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 김은주, 김민규, 김주환 (2007). 학업효능감과 의사소통불안이 사회적 실제감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중학생들의 온라인 게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2), 209-231.
-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주환, 김민규, 이윤미, 김은주 (2006). 온라인 게임중독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5), 79-108.
- 김준곤, 성한기, 이춘희, 박경자 (1991). 대학생 생활 만족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4(1), 154-167.
- 민하영, 이윤주, 이영미 (2004).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 된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7-27.
- 서은국, 성민선, 김진주 (2007). 긍정심리학 입문. 서울: 박학사.
- 소연희 (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4), 1007-1028.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

- 응집력과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가혜, 안창일 (2006).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 관계지향성과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657-673.
- 이명신 (1998).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외향성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99 -112.
- 이화령, 임낭연, 류초롱, 서은국, 박수진 (2008). 외향적 기질과 행동이 유발하는 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59-175.
- 이희영, 최태진 (2004).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 활적응: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중재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5(1), 109-136.
- 정 민, 노안영 (2002). 생활양식과 대학생 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75-387.
-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 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1(3), 321-337.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사이 버일탈행동: 인간관계, 도덕적이탈, 성격 및 일반적인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4), 799-82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onoff, J., Stollak, G. E., & Woike, B. A.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breadth of interpersonal eng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5- 114.
- Baldwin, M. W. (1992). Relational schema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61-48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n the Child*, 22, 162-18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hoi, K. H. (2002). Psychologic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Korean American students: The roles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68-475.
- Cross, Susan E., Bacon, Pamela L., & Morris, Michael L. (2000).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91-808.
- Cross, Susan E., Morris, Michael L., & Gore, Jonathan S.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3), 399-418.
- Cross, Susan E., Gore, Jonathan S., & Morris, Michael L. (2003).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concept

- consistency,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933-944.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atinium.
- Deci, E. L. & Ryan,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Rochester, New York.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67.
- Diener, E., Suh, E., Lucas, R., and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2nd ed.)*. McGraw-Hill, New York.
- Grolnick, W. S., & Ryan, M. D.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Haze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orowitz, I. M., & Vitkus, J. (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43-469.
- Kitayama, S., & Markus, H. R. (1998). Ying and Yang of the Japanese Self: The cultural psychology of personality coherence. In D. Dervone & Y. Shoda (Eds.), *The coherence of personality: Social cognitive bases of personality, consistency, variability and organization*(pp. 242-302). New York. Guilford Press.
-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ng-Takac, E., & Osterweil, Z. (1992). Separateness and connectedness: Differences between genders. *Sex Roles*, 27, 277-289.
- Lapsley, D. K., Rice, K. G.,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232-241.
- Lee, R. M. &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10-318.
- Levesque, C., Zuehike, A., Stanek, L., & Ryan, R.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68-84.
- Patton, M. J. & Robbins, S. B. (1982). Kohut's self-psychology as a model for college student counseling. *Professional Psychology*, 13, 876-888.
- Peplau, L. I., & Perlman, D. (1979) blueprint for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loneliness. In Cook, M. & Wilson, G. (Eds.)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New York: Pergamon.
- Robbins, S. B. (2004). Do psycho-social and study

- skill factors predict college outcomes?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 261-288.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arason, B. R., Pierce, G., & Sarason, I. G. (1990). Social support: The research for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133-147.
-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161-1176.
- Woike, B. (1994). The use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Empirical studies of “separate” and “connected” way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42-150.
- 원고접수일 : 2009. 6. 15.
게재결정일 : 2009. 7. 31.

The Effect of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on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a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Sujin Lee

Kookmin Univeris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the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utonomy to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were assumed as one of fundamental human needs, which seemed more important during college life. In testing the structural model, the variable of interpersonal problem was assumed to become mediator in relation of the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to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That is, those who with a high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would experience lower interpersonal problems than their counterparts, which effect in a higher degree of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s expected, the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lso, the interpersonal problem played a partial mediator role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present study implied the importance of the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for successful adjustment in colleg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utonomy, College adjustment, Subjective well-being